

## [ 교육철학 진술의 예 ]

### 1. 티칭 동기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공부(학문)를 계속한다는 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직업)가 교수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았다. 시간강사 시절을 포함하여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지 15년째인 나는, 교수 커뮤니티에의 참여를 계기로 나의 교수 여정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해 티칭 포트폴리오를 작성/개발하게 되었다.

### 2. 담당 과목 및 수강학생

기독교윤리학과 여성신학을 전공한 나는 교수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2003년 1학기까지는 기독교윤리학과 여성신학 관련 과목을 가르쳤으며, 2003년 2학기부터 2010년 현재까지는 기독교교양과목(현대사회와 기독교, 기독교정신과 사회봉사, 기독교의 이해)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한 학기에 여섯 반(2학점짜리 동일 과목, 한 반 수강생 70명 내외)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반은 대부분 동일 전공/학과의 1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교양과목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과목이 아닌 교양필수과목인데다가 과목명이 풍기는 인상 때문에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불만과 저항이 강한 수업이다.

### 3. 기독교교양교육에 대한 교육철학

나는 기독교교양교육이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의 방법과 목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양교육은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 또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이라고도 불린다. 일반교육이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교육(specialized education)에 대응하는 표현으로서, 종합적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뜻을 함축한다(김성진, 137). 자유교육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 기원을 둔 교육이념으로서, 인간의 이성을 자유롭게 발달시켜 무지, 미신, 편견 그리고 편협함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미리, 10; 김성진, 137). 자유교육은 교양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신이다(최미리, 10, 186). 이러한 주장은 자유교육을 단지 지식의 항목이나 내용이 아니라, 교육방법에 의해 재정의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최미리, 71, 189).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그것의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고(Recovery), 다른 사람들의 주장 중에서 그릇되고 거짓된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Rejection), 다른 사람들의 주장 중에서 유효하고 가치 있는 것을 더욱 갱신하거나 혁신할 수 있고 (Renewing or Renovating), 창의적인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수정적 또는 혁명적 사고를 할 수 있게(Revising or Revolutionizing) 된다(Booth, 178-9).

김성진, 137-8에서 재인용)<sup>1)</sup>. 이와 같은 교육방법에 따른 교양교육의 목적은 첫째, 지적 능력의 계발과, 둘째, 전인적 인격의 함양으로 요약된다(최미리, 71-75). 교양교육은 지식 습득 그 자체보다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계발에 초점을 맞춘다(손원영, 111). 또한 교양교육은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 즉 정서적이고 심미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모두 아우르는(최미리, 72) 전인적 교육을 지향한다.

나는 기독교교양교육의 개념을 기독교적 삶과 기독교적 삶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작업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손원영, 128)에 동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첫째, 기독교교양교육은 기독교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 교육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이다(손원영, 126). 둘째, 기독교교양교육은 기독교적 가치를 사회와 역사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실천 지향적 교육이다(손원영, 127). 셋째, 기독교교양교육은 우리의 삶을 당면시 여기는 교육이 아니라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 왜곡된 의식과 허위 의식을 폭로하고 해방과 자유를 지향하는 교육이다(손원영, 127).

내가 생각하고 가르치는 기독교교양교육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념체계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수하여 학교를 교회화 하려는 '교회확장'의 수단이 아니라, 자유교육의 방법에 따라 기독교라는 렌즈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다.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는 무엇이며,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독교적 지성인으로 살아가도록 동기 부여하는 교육이다.

기독교교양교육에 대한 이러한 교육철학은 내가 담당하는 “기독교의 이해” 수업목표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①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목표로 함 ②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함 ③ 삶의 의미와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 ④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를 배움 ⑤ 건전한 소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4. 교육자로서의 교육철학

나의 교육자로서의 교육철학은 아래와 같이 김용석의 글(김용석, 217-218)을 인용함으로써 대신하고자 한다.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쌓은 지적 재산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 일의 핵심이 교육이다. 젊은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한적인 사랑과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동반하는 일이다.

.....교육 문제 앞에서 교육자가 할 일은 우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재교육하는 것이다.....이는 단순히 강의 기법을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보고, 그것이 학생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고 넓게 사색해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최적의 소통 방식이 창발하듯 절로 따라 나온다. 좋은 강의를 위해서는 이미 숙지하고 있는 강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교육자 스스로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의 인격과 자질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어주는 신뢰의 끈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과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나는-내가 하는 학문을 믿지 않듯이-오히려 종종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자질과 능력에서 고치고 보완할 데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공부를 시작한다.

1) 이것을 교양교육의 4R이라고 한다.

## 5. 수업개선을 위해 시도한 사례

### ① 자기소개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한다. 모든 학생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각자 45초 내외로 자기소개를 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은 자기소개를 통해 교수 혼자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 ② 발표 · 토론 · 강의 병행 / 브레인스토밍

과목 자체의 원천적 한계(비자발적 교양필수과목)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강의와 병행하고 있다. 또한 어떤 주제에 대해 강의하기 전에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견해를 점검하게 한다.

### ③ 학생들의 질문과 문제제기 독려, 학생발표에 대한 다면 평가

학생들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한 후 그 주제에 대한 교수의 강의를 이어지는데, 이때 교수의 일방적인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질문과 문제제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학생과 교수가 함께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도 높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④ 종교기관 탐방 및 참여관찰

종교기관 탐방 및 참여관찰은 이웃종교의 기관을 탐방하고 그 종교기관의 종교의식에 참여하여 관찰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웃종교에 대한 피상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고 부정적 편견을 수정하고자 2009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과 평가가 긍정적이다.

### ⑤ 영상수업, 마음공부

영상수업의 경우, 다름/차이의 문제나 인권 등을 다룬 영화를 본다. 영화를 본 직후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짧은 감상 평(50자 내외)을 쓰도록 한다. 마음공부는 일종의 자기성찰과 명상의 시간으로, 학교 내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며 ‘나의 사명선언서 / 나를 위한 기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 ⑥ 눈맞춤 출석 체크

나는 출석을 공들여 부르는 편이다. 학생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일일이 눈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워낙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모든 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눈맞춤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5. 수업개선을 위해 시도하고자 하는 방법

### ① 사진 첨부한 자기소개서 활용

학생들에게 사진 첨부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하여 출석부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상과 관심사에 대해 교수가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며, 교수와 학생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어 수업 분위기 향상에 도움이 된다.

### ② 질문시간

수업 초반 10분 이내에 질문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에게 지난 시간 학습내용을 상기시키고 어수선한 수업 분위기를 안정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③ 수업평가

학기 말 즈음에 수업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무기명 서면평가를 하게 한다.

## < 참고문헌 >

김성진. 『대학교: 이상, 현실 그리고 개혁』. 서울: (주)한국교육미디어, 2003.

김용석, “어느 날 철학이 내게로 왔다,” 김열규 외 지음. 『공부의 즐거움』.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6.

손원영.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2001).

조용개 · 심미자 · 이은화 · 이재경 · 손연아 · 박선희 공저.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전략』. 서울: 학지사, 2009.

최미리. 『미국과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서울: 양서원, 2001.